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학사일정 안내/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이슈/교육현장노트
- 06 교육과 스승
- 07 교육과 공동체
- 08 학위취득자 영단

학사일정

9월

- 1(화)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 1(화)~7(월) 2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 (2020년 10월 시행)
- 1(화)~10.16(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 어면제 신청
- 1(화)~11(금) 기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 1(화)~9(수)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1(화)~9(수) 학위청구방식 신청기간(논문 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 1(화)~9(수)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5학 기생)
- 2(수)~7(월)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 14(월)~18(금)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 30(수) 추석(공휴일)

10월

- 1(목)~2(금) 추석(공휴일)
- 3(토) 개천절(공휴일)
- 5(월)~14(수)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 9(금) 한글날(공휴일)
- 12(월)~19(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 12(월)~21(수)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 16(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 16(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 20(화)~26(월) 2학기 중간고사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정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0년 9월 5일(토)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69호(월간)

■ 초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I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지현 대표입니다. 저는 홍민정 선생님과 공동으로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신문을 통해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I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교육 비전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8년 6월에 창립한 교육 시민단체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 운동'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학교 교육을 반(反)교육으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 후원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오래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 영재고·특목고·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 불공정한 6단계 고교 입시와 상대평가 대학 입시 등 제도·정책적으로 입시 경쟁을 조장합니다. 따라서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 조기교육과 영재교육이 각광 받고, 유년기부터 고교 및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둔 경쟁이 시작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며,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채용·대학 체제 바로잡기, 두 번째, 유·초·중·고 교육과 대학 입시 바로잡기, 세 번째, 사교육 시장의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네 번째, 우리 안의 오래된 인식들을 변화시키고 정치·행정·언론이 올바르게 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운동의 4가지 목표입니다.

I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은 입시 경쟁의 피해자이자 사교육 상품의 소비자입니다. 동시에 정치와 행정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 주체이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듣고, 그들이 주인으로서 정치와 행정에 당당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대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 없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후원 회원들의 의결기구인 회원 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기 위해 기자회견과 보도 활동을 통하여 비교과 3요소(자기소개서, 경시대회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의 폐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2015년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캠페인을 펼치며 약 4년에 걸쳐 중학 수학 대안 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개발하여 현재 중학교에 보급 중입니다. 한 가지 정답을 찾는 수학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념을 익히는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며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실험적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 최근 떠오르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진행 또는 구상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초·중·고의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체감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 유무별, 가구 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국민 다수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음의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출신학교 차별 종식 △대학 서열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입시 사교육 문제 근본적 해결 △낮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영유아 인권법' 제정으로 극복

I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 현장에 나가 학생들의 학습과 삶을 책임질 미래의 교사 및 교육학자로서 그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실현하고자 한다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19052020
KOREA UNIVERSITY 115th ANNIVERSARY

201



년에 출범한
KU PRIDE CLUB이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천5백여 명의 후원자가 모아주신 정성은
15만 명의 학생들에게
전해했습니다.

KU PRIDE CLUB이
래 오래~
고려대의 기부 문화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누적 회원 5,517명 17,102구좌
(2020. 05. 29 기준)



누적 지원 내역



마음돈든 아침

*2018.11.1~12.31(시범운영), 2019.2.1~12.31

125,456명
3.1억



글로벌 희망 장학생

*지원학기 2016~2, 2017~2, 2018~1, 2018~2, 2019~1, 2019~2

175명
13.3억



생활비 장학생

*지원학기 2017~2~2020~1 (매학기 선별 지원)

2,800명
33억

KU PRIDE CLUB 후원문의

홈페이지: give.korea.ac.kr | 이메일: kupride@korea.ac.kr | 전화: 02-3290-1243 |

고려대학교 기부금 후원 계좌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고려대학교)

* 이 광고는 고려대 학생 기부 홍보대사 콤피(KUP'C)의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식



지난 8월 20일(목) 오후 2시 ‘2020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온라인 입학식은 입학생 개인에게 사전 전송된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공유된 자료에는 2학기 수강신청 매뉴얼, 입학식사, 전공주임교수 및 교수진 소개, 학사안내, 교직원안내, 성평

등교육과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입학식사 영상에서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은 “변혁의 시대에 교육도 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찾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꿈을 이루기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전공주임교수 및 교수진 소개는 슬

라이드 형식의 PDF 파일로 제공되었으며 23개 학과의 전공주임교수와 교수진의 학력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학사안내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녹음한 슬라이드 파일로 수업과 성적처리 관련 교무, 학적 및 논문, 장학금과 학생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교직원에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증 취득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다.

성평등 교육은 성평등센터에서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명, 관련 고려대학교 규정과 대처 및 예방 가이드를 내용으로 한 슬라이드 PDF 파일을 제공하였다.

상기 자료는 8월 20일(목) 2시부터 9월 10일(목)까지 한시적으로 공개되며 필요한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윤지현 기자 frannydream@naver.com

201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지난 8월 25일(화) 오전 10시 운초우선교육관 203호에서 ‘201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석사학위 수여자 보고, 우수졸업자 시

상, 교육대학원장 학위수여식사 순으로 전개되었다.

정태구 원장은 “졸업은 새로운 목표를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다. 멋진 꿈을 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떠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며,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서 고려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널리 펼쳐 각자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교육대학원 행정실은 학위수여식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졸업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원우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위 가운 대여 및 개별 사진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192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조예슬(일반사회교육전공) △공로상 김민희(체육교육전공) △우수논문상 문혜진(간호교육전공) 외 10명 △성적 최우수상 이유석(가정교육전공) 외 22명 △성적 우수상 송예나(간호교육전공) 외 33명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안내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첫째, 2학기 학사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난 1학과와 같이 정부의 방역 수칙에 연동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제한적 대면 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일부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수업을 진행하되,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중계가 불가능할 경우 강의 상황을 녹화·녹음한 자료를 강의 시간 후에 탑재하거나 대면 수업 없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만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직후 1주간(10월 5일(월)~ 9일(금))은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 수업은 제한된다. 이는 연휴 기간에 전국적인 이

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현 실습 및 실기 수업의 경우에도 수업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지만 다음의 경우 대면 수업만 시행할 수 있다.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수강생들에게 수강 신청 이전에 고지하거나 협의를 거쳐 수강생 전원이 동의한 경우

둘째,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이나 전면 온라인 강의 방식에서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녹화 강의는 보강 및 시험 기간 중의 강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녹화 강의는 수업 시간을 준수하여 강의 자료를 탑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과 온라인 학습 활동을 하여야 한다.

셋째, 성적 평가의 방식은 정부의 방역 수칙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면 시험이 원칙이며, 비

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대체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비대면 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 시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면 시험의 시행을 위해 본교의 시험 기간은 2주간으로 변경되었다. 중간시험은 10월 20일(화)부터 11월 2일(월)까지, 기말시험은 12월 8일(화)부터 21일(월)까지 시행된다. 기말시험을 15주차에 시행하는 교과목의 경우 15주 이내에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해야 한다. 시험 기간 중 시험 시간 외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수업의 방식 및 성적 평가의 방식은 8월 21일(금) 수강 신청 전에 각 교과목의 강의 계획안을 통해 △수업 유형(비대면/온·오프라인 병행/대면) △성적 평가 방식 (대면/비대면/과제물) △시험 일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공지되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일정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정이 공지되었다. 개강일은 예년과 동일하게 9월 1일(화)이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일정을 참고하여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학생 정규 등록 일정(8월 21~28일)의 재학생은 재입학생과 복학생을 포함한다. 일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02-3290-1184)로 문의하면 된다.

윤지현 기자 frannydream@naver.com

〈2020학년도 등록금 일정 안내〉

07월	6월29일(월) ~ 7월3일(금) 16:00	2020학년도 학부 후기 신입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12년과정)] 등록
	06(월) - 08(수) 16:00	2020학년도 일반/특수/전문대학원 후기 신입생 등록
08월	22(수) - 24(금) 16:00	2020학년도 일반/특수/전문대학원 후기 신입생 미등록 총원 등록
	17(월) - 28(금) 16:00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고지서 출력
	21(금) - 27(목) 16:00 21(금) - 28(금) 16:00	2020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정규등록
09월	02(수) - 04(금) 16:00	2020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1차 등록
	03(목) - 09(수) 12:00	2020학년도 2학기 초과학기자 신청
	10(목) - 14(월) 16:00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추가(최종)등록
10월	10(목) - 14(월) 16:00	2020학년도 2학기 초과학기자 등록
	01(목) - 06(화) 16:00	2020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2차 등록
	02(월) - 05(목) 16:00	2020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3차 등록
11월	02(월) - 03(화) 16:00	2020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 등록
	01(화) - 04(금) 6:00	2020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4차 등록
12월	28(월) - 30(수) 6:00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등록(예정)

※ 등록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해 특별휴학을 시행한다.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산·편입생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단, 산·편입생은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휴학 신청은 교육대학원 산·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또는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월)부터 11월 30일(월)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이다. 특별휴학원서,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또는 비자발급 불허의 경우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9월 14일(월) 오후 4시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산·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9월 15일(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된다.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이 환수처리 된다. 다만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 장학금의 이월지급을 허용한다.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 장학금에 한하며 외부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른다.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은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장학생 자격을 취소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2/1377)로 문의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 방안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 변동에 따른 2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 방안이 안내되었다.

학사일정상 4주 실습이 불가능한 실습학교는 그 기간을 2주 축소할 수 있다. 단,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2주 실습(1학점)을 하게 되는 학생은 본교의 사전교육 및 간접실습(1학점)을 이수하여야 실습 인정이 가능하다.

차수	일시
1차	2020.09.05.(토) 10시 30분
2차	2020.09.12.(토) 10시 30분
3차	2020.09.19.(토) 10시 30분
만족도 조사	2020.12월경

사전교육 및 간접실습은 위의 〈표〉와 같이 9월 중 운영되는 학교현장실습 특강(1~3차 사전교육)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콘텐츠(간접실습)로 구성된다.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콘텐츠는 중앙교육원 홈페이지

지(<https://www.net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2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근무기관명에 ‘고려대학교(7001504)’, 직급명에 ‘일반인(U70052)’, 교육대상자 구분에 ‘일반국민’을 기입하여야 하고, 콘텐츠 목록 중에서 2개의 과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편, 영상 진도율을 90% 이상 달성하고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개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12월 4일(금)까지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 또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원(02-3290-1333, teaching@korea.ac.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주요 학사 일정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학사일정표〉			
년월	일	요일	학사내용
9	1	화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1~7	화~월	2학기 종합시험 접수(2020년 10월 시행)
	1~9	화~수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1~9	화~수	학위청구방식 신청기간(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1~9	화~수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 5학기생)
	1~11	화~금	기 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1~10.16	화~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4~10	금~목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14~18	월~금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10	25~26	금~토	정기 고·연전(취소)
	5~14	월~수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12~19	월~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2~21	월~수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16	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16	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11	20~11.2	화~월	2학기 중간고사
	6	금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10~12	화~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16~12.4	월~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12	28	토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4	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8~21	화~월	2학기 기말고사
	11	금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2021.1	22	화	겨울방학 시작
	4~6	월~수	완제본 논문 접수
	1~25	월~목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18	목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식
	19~23	금~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9~25	금~목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2021.2	25	목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5	목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기간 만료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화) 2020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의 주요 학사 일정은 위의 표와 같다.
9월 1일(화) 개강과 함께 7일(월)

까지 2학기 종합시험 접수가 진행된 다. 종합시험에 응시할 학생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2학기 기준 3학기 재학생

은 마감일인 9일(수)까지 '지도교수 및 학위청구방식 신청서'를 이메일(edugrad@korea.ac.kr)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교육, 교육행정및

고등교육, 영어교육, 한문교육 전공의 학생은 학점중심과정 신청이 불가하며 논문중심과정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메일 제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학년도 2학기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다.

4, 5학기 재학생은(영재및특수교육전공은 학기를 제한하지 않음), 9일(수)까지 이메일(edugrad@korea.ac.kr)로 유사전공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사전공과목이란 본인 전공 외 타 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가운데, 유사과목 6학점을 본인 전공의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이는 본인이 작성하는 논문 내용 및 전공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유사전공과목 신청은 2020학년도 2학기에 수강 예정인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취득한 과목은 유사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9월 14일(월)부터 18일(금)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학비 감면 신청 기간이다. 고려대학교 포털(http://portal.korea.ac.kr)의 '등록/장학' 메뉴 가운데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접속하여 장학금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본 교육대학원의 모든 장학금 및 학비 감면은 서류 검토, 전공 주임 교수의 장학금 수혜자 선정 과정을 거쳐 사후 지급된다. 결과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되며 장학금은 학적부에 기재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2학기 종합시험은 10월 16일(금)에 시행될 예정이며, 교직 및 영어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날까지 면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종합시험 결과 발표는 11월 6일(금)로 예정되어 있다. 종합시험에 이어 10월 20일(화)부터 11월 2일(월)까지 2학기 중간고사가 실시된다. 또한, 11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는 2020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논문 제출 자격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이번 학기 이수 예정자 포함)하고, 종합시험(교직, 전공, 외국어)에 합격한 자이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제출 승인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심사용 논문 3부가 필요하다.

12월 8일(화)부터 21(월)까지 2학기 기말고사가 진행되며, 22일(화)부터는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다양한 학사 관련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 2월 1일(월)부터 25일(목)은 2021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및 재입학 신청 기간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반 휴·복학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포털(http://portal.korea.ac.kr)의 '학적/졸업' 메뉴 가운데 '휴·복학 신청'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된다. 출산·육아 휴학, 자격·연수 휴학, 군입대 휴학 및 군 제대 복학의 경우 온라인상에 증빙 서류(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휴학 신청서, 복학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를 증빙 서류(사본)와 함께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1학년 1학기 수강신청은 2021년 2월 19일(금)부터 2월 23일(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1학년도 1학기 등록은 2021년 2월 19일(금)부터 2월 25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 신청 및 제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수진 기자 dkstnwns61@korea.ac.kr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수험생 감염 위험 및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진단하고, 평가 환경이 상이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평가를 구분하여 대입 관리 방향을 마련하였다.

대입 관리 방향은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방역 관리 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 원칙을 토대로 수립한 세부적인 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수험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험 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 시험장별 세부 방역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자가격리자/확진자)은 별도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일반수험생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이동하여 응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게 된다.

대학별 평가는 학내 여건에 따라 대학 자체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응시자 간 간격 확보,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수험생 동선 유의, 학부모 대가실 미운영 등을 권장하지만, 대면요소 진단 결과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대학은 면접평가 비대면 전환 등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응시는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자가격리 수험생의 전국 단위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은 권역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여 수험생이 지닌 대학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대학은 각 시험장에 관리 인력을 파견하여 전형을 운영·관리한다.

교육부는 대입 집합 평가로 인한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주관기관 및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진단·관리할 계획이다.

예비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미래교육센터설치

교육부는 예비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대학이나 국립대 사범대학 등의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 양성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공모를 거친 후,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2021년 10개교, 2022년 8개교로 총 28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때,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2~3개의 교육대학 및 국립대 사범대학을 선정한다.

〈미래교육센터 공모 및 선정 개요〉
△ 대상 기관: 교육대학 및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사범대학
△ 선정 방식: 4개 권역, 총 10개 대학 선발 (교사대 구분 없이 선정)
※ 서울 경기 강원 제주/부산 대구 경남 경북/광주 전남 전북/대전 충남 충북
△ 사업 예산: 2020년 33억원 (10개교, 교당 3.1억원 내외 지원)
△ 사업 위탁 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융합기획실)
△ 사업 기간: 2020년 8월 13일 공모 및 9월 첫 주 중 대상교 선정

미래교육센터는 원격 수업 실습실, 콘텐츠 제작실 등의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예비교원들이 원격 교육 환경 아래 교육 내용과 방법, 수업 설계 및 시연 등을 통해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비 교원들은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학급관리, 팀티칭 등 원격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 예비 교원, 현직 교원·교수·합격한 수업 모형 연구, 학교 현장과 교원양성기관이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원격 멘토링 봉사 등을 통해 소외계층지역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관리 등 학습결손 예방과 학습자 맞춤형 방과후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다가올 미래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원 단계에서부터 원격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우리 교육에 예비 교원들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0년 8월 5일(수)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별 문항 수 대비 70% 수준을 유지한다.

학생들이 균형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비 문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를 제공한다. 더불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 및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도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 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 및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은 방역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시험을 원활히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하며, 책상에 간막이를 설치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외 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안수진 기자 dkstnwns61@korea.ac.kr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윤지현 기자 frannydream@naver.com

교육과 학문

교사 전문성의 담론 변화에 대한 연구 - 미셸 푸코의 통치성 변화를 중심으로



정용주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I 교사 전문성 담론 분석

교사 전문성 담론 연구는 노동 주체로서 교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새로운 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에 관한 표상을 변화시키는지, 노동 주체로서 교사의 주체성을 재구성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담론이 가진 총체성, 권력과 구분되는 통치성 및 장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

교사 전문성을 담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교사가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사의 생애에 걸친 전문성 개발은 자유의지에 따라 단계적·진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적 불일치 및 모순과 긴장 속에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형성과 운영 면에서 국가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학 지식을 활용하여 교사를 특별한 방향으로 이끌면서(통치, governmentality),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장치, dispositif)하기 때문이다.

II 권력 분석에서 통치성 분석으로

통치성 개념은 권력의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을 기각한다. 국가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강제나 지시가 아닌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담론은 권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통로로, 권력은 담론을 통해 지배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의 행위를 인도하는 형태로 행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에 대한 지배는 억압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인지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통치성은 행위자에 대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로 권력의 지향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은 의도적으로 담론을 형성·유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다.

담론은 지식, 테크닉과 장치, 그리고 실천이 결합된 개념이다. 담론은 통치 기술이며, 특정한 맥락에서 이 기술 아래 개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적합한 행위 양식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하지만 늘 권력의 장 속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주체가 자발적으로 권력의 지향에 맞는 행동 양식을 개발하게 되면서 지배와 피지배, 자유와 제약 등의 이원론적 관점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제 국가는 강제성을 발휘하여 통제하는 대신 교사에게 질문한다. 세세하게 교사 전문성을 정의하고 세심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교사가 스스로를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는 통제를 최소화하고 주체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자유를 통해 나타나는 순환의 관리,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담론 체계를 정교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III 주체의 생산과 교사 전문성 담론의 자기 강화

구성된 통치 대상에 권력이 작용하기 위해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계가 작동하는지 규정하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어떠한 지식 영역을 상관적으로 구성하는 한에서만 권력 관계는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권력 관계를 전제하지 않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의 기술들과 권력의 전략들 사이에는 어떠한 외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곧, 지식은 지식의 대상을 지배 가능하게 만들고 권력은 통치하려는 대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

따라서 통치는 그 주체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주체의 생산에 관한 푸코의 통치성 논의에서 독특한 점은

그 과정에 개입하는 개인들에 외적인 권력, 지식의 선분과 개인들에 내적인 권력, 지식의 선분이 결합하는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을 특정 주체로 만들기 위해 외부에서 개인에게 작동하는 권력·지식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전략들, 그리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특정 주체로 만들기 위해 자기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력·지식의 테크놀로지와 전략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통치성은 자율적으로 전문가 되기라는 주체화 과정과 저항적 주체화 과정이 상호 충돌하게 만든다.

교사 전문성 담론을 작동시키는 통치성은 교사를 전문성 담론의 장으로 호명하여 자율적으로 전문가가 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교사의 저항적 실천과 주체화는 국가의 공교육 정책의 실현, 특히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도구적 전문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조건 속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저항의 양식도 교사 전문성 담론의 외부로 향하는 ‘실천’이 아니라 질서 내부로 끊임없이 포획되는 “저항”을 하게 된다.

이에 국가는 보다 정교한 지식-권력 장치를 개발하여 전문성 담론의 자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담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교사의 적극적 수용과 문제화로서 저항으로의 분화와 통합이 계속되면서 교사 전문성 담론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I 교사 전문성 담론의 네 가지 기능: 보호, 존중, 촉진, 조성

순환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교사 전문성 담론은 전문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조성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

는 자기 조정적 전문성 형성 원리는 존중과 보호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또는 사회의 전문성 보호 원리는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조성과 촉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국가는 교사 전문성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 권력 장치를 고안하여 이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서 교사를 전문성을 갖춘 주체로 생산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사를 억압하거나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의지에 저항하기도 한다. 그들은 교육을 사적 관계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방향 또는 공적 개입을 저지하여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율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II 욕망의 체계로서 교사 전문성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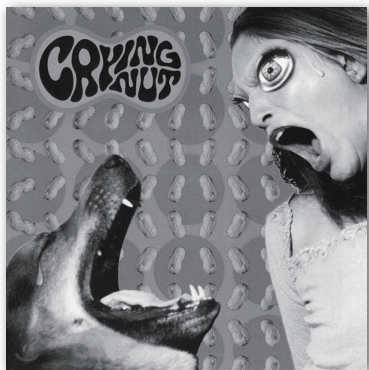
교사 전문성 담론은 정책이나 합리적인 제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교사들의 승진에 대한 욕망,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 좋은 교사가 되려는 욕망,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은 감정, 더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하려는 욕망을 생산하고 조직한다. 담론 속에서 주체는 항상 장치들과 이성적, 감성적 관계를 맺으며 불안정하고 개방적인 재배치 속에 존재한다. 이는 담론이 단순히 이성적인 제도들의 결합이거나 연수, 양성 과정에 대한 질 관리, 합리주의적 접근만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담론은 몸과 삶의 방식을 확장시키는 주체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주체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교육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신문 문화평

크라잉넛 데뷔 25주년: 조선펑크의 과거와 현재 ①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보다 한꺼번에 불타는 게 낫다.’ 록의 마지막 제왕인 커트 코베인의 유서에 적힌 이 말은 한편으로 곧 시작될 제국의 쇠락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을 이룬 적도, 따라서 한꺼번에 불타는 적도 없는 한국 록 씬은 하나의 불씨를 예비하고 있었다. 1995년 4월, 홍대 인근에 위치한 클럽 ‘드럭’에서 열린 커트 코베인 1주기 추모 공연은 그 불씨를 개였다. 무대에 오른 몇몇 밴드는 곧 무대를 휘저으며 악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일군의 관객이 무대에 올라 동참하며 이 날 공연은 광란에 휩싸인다. 밴드들을 따라 기타와 앰프를 부수고 쌓여 있는 맥주 캔 더미에 몸을 날리던 이들은 갓 수능을 마친 네 명의 사내아들이었다. 세 달 뒤부터 연주자로 드럭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이들의 밴드명은 ‘크라잉넛(Crying Nut)’. 1990년대 말부터 수년간 한국 록 씬을 ‘한꺼번에’ 집어삼킨 ‘조선펑크’의 불길기 점화되는 순간이었다. 바야흐로 서태지가 은퇴하고, 향후 대한민국 음악 공장들에 새로운 표준이 될 H.O.T가 막 출하되던 시기였다.

흔히 이 시기를 한국 인디록의 출발점으로 잡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굳이 구별지어 말하면 이 때는 ‘인디 음악’과 ‘(한국식) 펑크록(Punk Rock)’의 태동기라는 서술이 더 적절하다. ‘Independent’에서 유래한 ‘인디(Indie)’란 용어는 음악의 생산과 유통을 오롯이 창작자가 담당하고 결정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음반(지금이라면 ‘음원’까지 아우르는)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는 소규모 레이블이 있지만, 적어도 자본의 논리보다 뮤지션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즉 ‘인디’란 ‘장르’가 아닌 ‘태도’에 대한 규정임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유독 장르를 지칭하는 록이란 용어와 착종된 용례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물론 인디 음악이

세계적 흐름에서도 록, 특히 펑크록과 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펑크’ 역시 록의 하위 범주 중 ‘태도’의 측면이 가장 부각되는 장르 중 하나로, 그 요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너 스스로 해야 하는(DIY, Do it yourself)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형식 면에서는 기교에 치중하던 당대 메탈, 하드록에 대한 반발음, 내용 면에서는 영국의 섹스 피스톨즈가 대변하는 ‘미래 없는 젊은 노동계급의 분노’를 응축한 장르가 펑크이다. 원산지에 비해 훨씬 늦게 파종된 펑크록이 한국 나름의 방식으로 개화한 형태가 조선펑크이며, 그 첫 싹을 틔운 밴드가 크라잉넛이었다.

태도로서의 펑크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크라잉넛의 데뷔 장면이다. 박윤식(보컬/기타), 이상면(기타), 이상혁(드럼), 한경록(베이스)은 소위 ‘동부 이촌동’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다(이상면과 이상혁은 쌍둥이 형제이고, 후에 아코디언과 그 외 세션을 담당하는 김인수가 합류한다). 1993년, 로큰롤에 빠져 다짜고짜 밴드를 결성한 이들은 2년 뒤인 1995년 7월, 클럽 드럭의 이석문 사장(훗날 드럭 레코드 대표) 앞에서 오디션을 치르게 된다(1994년 오디션에서는 “대학이나 불고 와라.”는 말을 듣고 쫓겨났고, 이후 위에서 언급한 공연에서 벌인 난장으로 이석문의 주

목을 끌었다). 이석문의 회고에 따르면 한 명은 드럼 앞에 앉고 세 명은 모두 기타를 맨 채로 멀뚱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다. ‘베이스는 없냐?’고 묻자 기타가 멋있어서 셋 모두 기타를 친다고, ‘보컬은 없냐?’고 묻자 네 명(드럼 포함) 모두 노래하고 싶어서 보컬은 따로 안 정했다고 해맑게 답하는 이들이 훌륭한 연주 실력을 갖추었을 리는 만무하다. 이석문은 ‘일단 해보라.’는 말에 외국 얼터너티브 곡을 카피하며 날뛰기 시작한 이 고등학교생들을 기타 잭이 뿔려도, 마이크가 넘어져도 상관없이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들” 같았다고 기억한다. 이 아이들도 처음부터 오디션보다 무대에서 한 번 놀아보는 게 목적이었는지 연주(이석문의 표현으로는 “난리극”)를 마친 뒤 씩씩하게 묻는다. “아저씨, 우리 오디션 떨어진 거죠?” 그러나 뭇가에 매료되었던지 이석문은 “합격.”이라 답했고, 크라잉넛은 드럭의 하우스밴드가 된다. 한갓 차기에 머무르던 이들의 ‘스피릿’은 머지않아 ‘음악’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1996년 발표된 컴필레이션 앨범 ‘Our Nation vol.1’에 실린 ‘말달리자’가 그것이다(2편에서 계속).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이슈



임연옥

한양사이버대학교 플랫폼교육공학과 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모든 제도권 교육의 현장이 아우성이다! 처음에는 등교가 미루어 지더니 결국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변화 속에서 교육도 '어쩔 수 없이' 변모하고 말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Satya Nadella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과거 2년간의 디지털 전환 진척 정도가 단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 뉴노멀시대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밥물이 끓어오르듯 온라인 활용교육을 위한 준비가 그동안 물밑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토대가 마련되어, 교수자, 학습자, 학부모, 교육 행정가 등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였기에 이제는 밥이 지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다양한 긴급 상황이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공급의 다원화는 필수불가결한 해결책 혹은 대비책으로 등장한다. 원격교육은 교육 분야에서 전격적으로 뉴노멀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 한 학기 다급하게 이루어진 원격수업은 어떠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는 예상보다 선전한 한 학기였다고 평가된다. 질적인 면을 떠나 우선 전폭적인 크래쉬(crash)가 없었고 그럭저럭 한 학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IT 중심의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믿거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이전부터 마련되어 왔기에 가능했다. IT 강국으로서 정보통신 장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사이버대학 등에서 원격 교육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K-MOOC 콘텐츠 등도 개발되고 있었다. 원격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이끌었던 저력은 높이 평가되나, 반대로 부족했거나 아쉬운 부분도 적잖이 존재한다. 온라인 수업이 아직은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이 할 수 없는 새롭고 다채로운 교수학습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이루어졌던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의 일방적인 티칭을 답습하는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강의의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승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 뉴노멀시대의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설계는 새로운 인재상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왔다.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힘으로 저장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의 행복 추구하고 인간의 본질, 휴머니즘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에 따른 새로운 인재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에 쏟아지듯 존재하기에 많은 것을 알고 암기하는 능력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리 필요치 않을 것이다. 널리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종합,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 IT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융합형 사고, 창의력 등을 갖춘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된다. 인터넷은 학습커뮤니티에서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협력적, 사회적, 글로벌 자질을 갖춘 인재의 양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 타인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problem-based learning)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미래의 인재상이다.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를 어떻게 교육에 접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자연스레 교육의 방법론적 탐색으로 이어진다.

■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이 요구된다.

우선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변모하게 되는데, 교수자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가르침', '티칭'은 미래교육과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전수자이기 보다는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 '코치(coach)'의 역할로 바뀌게 된다. 뉴노멀시대, 원격 교육이 질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려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서포트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필자의 연구에서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둘 다 경험한 교수자들이 온라인 수업의 개발 과정과 운영 과정을 오프라인 수업보다 3배 더 힘들게 인식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인력과 운영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교수자의 강의 과부하를 덜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 조교가 학습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 조지아대학 등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조교가 활발하게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해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교육의 뉴노멀화로 인해 학습자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학습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여 수강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한 반복으로 되새길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은 각 학습자의 능력이나 이해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학습 속도(pace)에 맞춘 개별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사회적 러닝(social learning)을 확장할 수 있는데,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토론의 적용을 통해 학습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의 도입으로 토론방이 활성화되었고, 오프라인 강의실에서는 적극적인 학생들만 입을 열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자판으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이 많았다. 소극적이고 수줍은 학습자들이 온라인수업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 활발해질 수 있었고, 특히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을 반기는 경향도 보였다.

■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수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어쩌면 교수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Carol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고 Bloom에 의해 발전된 '완전학습이론'은 수업방법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학습속도에 맞추어 최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모든 학습자들은 학교가 설정한 교육목표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으며 개개인의 차이는 교수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 학생들에 맞추어 교수하는 오프라인 집체교육에서는 완전학습은 이상에 지나지 않았는데, 온라인 수업의 반복학습은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이 되리라 여겨진다.

학습분석(learning analysis)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에 맞춤형 학습자 지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49개 주(state)가 역량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나 목표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능

력에 따라 상급 교실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구성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습설계를 한다. 교수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별 학습 분석을 병행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 학습자들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스스로 정보나 지식을 탐구하고 수업에서는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평가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여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을 도입한 온라인 혹은 모바일 콘텐츠는 생동감을 부여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나 몰입도를 한층 증가시킬 수 있다. 실감형, 연결형 콘텐츠는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교육에 극대화하여 점목함으로써 학습자 인지 구조의 스키마(schema)를 의미 있게 형성할 수 있어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국내의 민간 영역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왔지만 제도권 하의 공교육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사이버대학만이 100%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면서 원격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 IT 강국으로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낸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많은 이러한 기업체가 생성되었지만 공교육에서는 거의 외면당해 온 상황이다. 뉴노멀시대에는 이러한 잠재력을 심분 활용하여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의 준비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장점을 겸비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적절한 역할 변화와 첨단 수업모델의 구현, 그리고 새로운 교수학습모델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오프라인 수업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한층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윤지현 기자 frannydream@naver.com



교육현장 노트



민시호

국어교육전공

나의 교육실습 기억은 '교장실'에서 시작된다. 장소가 장소였던 만큼 기억이 강렬해서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실습 첫날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육실습생 11명을 교장실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씩 건넸었다. 명렬표를 보고 무작위로 질문을 하셨기에 마음을 졸이며 순서를 기다렸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누굴 시킬까? 그래, 국어교육 전공이 있으시네. 민시호 선생님?" 정신이 아득해졌다. 교육실습에 임하며 자기소개를 준비하지 않

은 것은 내 불찰이지만 대답하기에 좋은 다른 질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기소개일까 하는 마음에 속이 상했다. 준비가 덜 되었던 나의 대답은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겨우 이름과 전공, 재학 학기 정도만 대답하고는 면구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라고 끝을 흐리고 말았다. 민망함을 감추려는 핑계였지만 최악의 대답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늘 말을 해야 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리도 당당하게 하다니. 이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다. 사실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마음이 반영된 셈이었다.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에 포박포박 '교사'라고 적었지만 여러 이유로 망설여 왔고, 교육실습 또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나간 것이 솔직한 나의 마음이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실습을 하며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 선생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내가 실습한 중학교는 규모가 상당히 큰 학교여서 신규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더욱 풍성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교사

의 기본자세가 무엇인지 돌아켜 보는 한편, 미약하나마 '교사로서의 내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탓에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만큼 선생님들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무연수를 들으면서 학생지도는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또한,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는 업무 외에도 여러 행정업무를 하느라 고단한 시간을 보내신다는 점도 깨달았다.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모로 소진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은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었다.

직무연수에서 들은 내용 중 유독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교육실습 일지에 받아 적은 기억이 난다. 내 노트에도 이를 옮겨 적어 지금도 가끔 들여다보고는 한다. "수업을 잘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지 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학생들은 교과가 아닌 선생님을 배운다. 생각과 행동을 배우는 것이다. 타성에 젖지 말고 수업 연구를 해야 한다. '아

이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 하고 고민하기보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교사로서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 그만둬야 한다." 내 학생 시절을 돌아켜봐도 정말 그랬다. 수업시간 및 그 외 시간에 선생님들의 말씀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의미를 부여했고, 때로는 흉내 내기도 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교사의 삶은 학생에서 시작해서 학생으로 끝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교직에 들어서고, 방학 중에는 연수를 받으며 자기연찬의 시간을 갖는다. 누군가는 '잡무'라고 부르는 행정업무도 결국 학교 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행복해진다. 교사가 가진 재능과 특기는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교육실습생은 학생이면서 교사인 모호한 신분이지만 이번 실습 기간에는 '학생'으로 더 오래 지냈다. '교사'의 길을 앞에 두고 책임감에 마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어쩐지 교직의 길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기분이 든다.

교육실습에서 학생이 아닌 '선생님'을 만나다

교육과 스승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남명초등학교 이인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 놀이터'를 만들고 계신 이인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인희
남명초등학교 교사

‘보물놀이’로 아이들을 리더로 성장시키는 남명초등학교 이인희 선생님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꿈꾸며 살아가는 대구남명초등학교 수석교사 보물놀샘 이인희입니다. 교실놀이와 보물찾기(초등셀프리더십)를 통해 아이들을 사회에 필요한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코칭하기 위해 독서를 꾸준히 합니다. 놀이로 행복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을 컨설팅, 강의, 책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지면으로 소통할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 교육자가 되시기 위해 서른살에 수능을 다시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2년차 승진교육에서 비전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잘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란 커다란 질문에 ‘21세기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가 된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당시 회사와 사랑에 빠져 있어 내가 쓴 비전이 뜬금없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비전을 적은 종이를 수첩에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해가 지날수록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29살에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운이 좋아 그 해 바로 교육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종이에 적었던 비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지요.

▶ 선생님께서는 교육철학으로 ‘놀이’를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놀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육에서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몰입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도전하게 됩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몰입하게 합니다. 놀이는 아이

들에게 삶이고 양식입니다. 아이들과 놀다보면 아이들은 수업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언제 수업 들어오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는 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 공간, 친구를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놀게 합니다. 운동장에서 맨발로 놀아도 됩니다. 어떻게 놀지 모르는 아이가 있으면, 놀이 친구가 되어 줍니다. 목적 없는 자유놀이를 경험하게 한 후 시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시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놀이를 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협력, 배려를 배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 놀이터, 학생회 규칙, 시험 유무, 아침 시간 활동 등을 만듭니다.

셋째, 관계형성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학교 공부도 즐겁습니다. 교실에서 첫 만남 놀이, 마무리 놀이를 통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넷째, 수업놀이를 합니다. 수업놀이는 주의집중, 동기유발, 목표도달, 수업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책 놀이 수업을 합니다. 질문놀이로 생각을 깊이 나눕니다. 책을 읽으며 독후감상문을 씁니다.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 놀이를 합니다. 저녁에 전통놀이, 우정사랑놀이를 결합하여 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부모 연수를 겸한 운동회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프로젝트를 합니다. 놀이와 초등셀프리더십을 결합하여 긍정, 비전, 시간관리, 문제해결, 공부, 독서, 우정, 진로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면서 배움을 만들어갑니다.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배워야 할 덕목을 익히고 내 속의 보물을 찾습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자발적 독서 동아리 ‘보물나비’와 동물농장 봉사 동아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물나비’는 새벽독서 동아리입니다. 잠자는 보물을 깨우는 의미와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자는 마음으로 ‘보물나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50분부터 8시 30분



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은 아이들과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첫째 8명으로 시작했던 보물나비는 30명이 모이는 독서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새벽독서 시간에 책을 읽고, 놀고, 토론합니다. 주말에 문학기행도 떠나고, 시내 책 나들이도 합니다. 방학 때 읽은 책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저희 집에 초대도 합니다. ‘보물나비’를 3년째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쓴 글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동물농장’ 봉사 동아리는 동물을 키우면서 만들었습니다.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30명 학생이 모였습니다. 30분~50분 중간 놀이 시간에 6명이 한 조가 되어 일주일에 한번 토끼, 닭 먹이 및 물 주기, 청소하기, 관찰일지를 씁니다. 학교 시집에 동물농장 관련 시가 많은 것을 보며 아이들의 동물 사랑을 봅니다. 동물농장에서 먹이를 주며 아이와 상담하던 일, 늘어난 토끼 가족 분양 문제로 토의한 일, 토끼와 병아리의 죽음으로 함께 울면서 묻어주던 일 등이 학교를 떠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 ‘행복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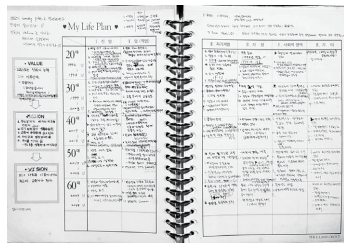
‘행복교육’은 아이와 선생님이 행복한 리더가 되는 교육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꿈꾸며 놀이와 리더십을 연결한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 수업이 이제 책과 강의가 되어 행복교육을 꿈꾸는 선생님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수석교사수업친구 동아리, 교사인문동아리, 배움놀이동아리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놀이 TF팀장, 놀이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만든 놀이나비, 초등인문지원단장, 감사하기 TF팀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행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행복하게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멘토로 서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행복 놀이터, 배움의 용광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의 교육관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교육관은 아이중심 뒷모습교육입니다. 아이중심 교육을 위해 놀이와 리더십을 만들었고, 뒷모습교육을 위해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중심이라고 말하면서 교사중심 수업을 하고, 아이 질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도 소중히 여기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수업 주제로 끌어오면 더 큰 배움이 일어납니다.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해가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따뜻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이가 학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 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 삶과 만나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믿고 교육하십시오. “수석님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요?”란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집 센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중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에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아이들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시 돋힌 말을 하는 아이 뒤에 숨어 있는 외롭고 때로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도와줄 사람과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는 언젠가 자기만의 빛깔을 찾아내고 행복해합니다. 덩달아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도 행복해합니다.

윤지현 기자 frannydream@naver.com



학교현장 탐방

'빅데이터중점과정'으로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는 가온고등학교



고경수
가온고등학교 교사

빅데이터중점과정에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빅데이터를
연결하여 생각해보는
경험을 합니다.
입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가온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온고등학교 수학교사 고경수입니다. 저는 가온고등학교에서 8년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혁신부에서 빅데이터중점과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12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왔으며 블로터타임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무학년제 계절학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로특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술중점학교로 선정된 이후 현재 빅데이터, 미술, 로봇공학, 인문학 등 총 4개의 중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도 지정되어 고교 학점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온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교의 교육목표는 '가온 21세기 미래의 고품격 인재육성'입니다. 고품격 인재를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학생중심교육과정'입니다. 본교는 교과교실제, 계절학기, 중점과정, 고교학점제 등 학생중심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특화된 공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이수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공교육의 요람'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온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IT 기술과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미래에는 사회의 각 분야에 빅데이터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온고등학교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 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2019학년도 입학생을 시작으로 2년제 빅데이터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온고등학교 빅데이터중점과정의 핵심역량은 빅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응용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응용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본교 입학 후 빅데이터중점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1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e-비즈니스 일반', '통계조사' 등 중점과정 교육분야의 기초지식을 함양합니다. 2학년으로 진급하면 학생들은 정규수업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사회탐구방법'을 수강함으로써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역량,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게 됩니다. 3학년에 이르면 정규수업으로 '창업일반', '인터넷 마케팅' 과목을 수강하면서 1, 2학년 때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빅데이터중점과정 학생들은 사회 현상을 통계적 수치로 분석하고 시각화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한편, 통찰력을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본교는 정규수업 외에도 '비주얼씽킹으로 이해하는 빅데이터', '통계코스워크', '텍스트마이닝 기초코스워크' 등 방과후학교 수업 및 빅데이터 활용 분야 전문가 특강, 교내 창업경진대회 등을 제공하여 중점과정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워크숍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빅데이터뿐 아니라 스마트팜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빅데이터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과정이 학생의 진로에 특화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점과정을 신청하는 학생 대부분의 진로 분야는 경영, 경제 계열입니다. 경영, 경제 분야에서는 수치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중점과정은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빅데이터중점 교육과정을 통해 수치를 다루고 분석하는 능력과 스토리텔



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진로와 연관된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학생이 진로 희망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학생이 배우는 지식과 삶을 연결하는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점과정에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빅데이터를 연결하여 생각해보는 경험을 합니다. 입시 위주의 일반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빅데이터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과정으로 구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강좌를 개설해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 또한, 중점과정에서 필요한 강좌를 결정한 이후에도 각 강좌에 적합한 전문인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본교는 접근성이 좋지 못해 인력풀이 풍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렵게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도 담당교사인 저는 학생들과 강사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업 방법 및 평가 방향을 강사와 사전에 조율하고, 매 수업 후 학생들의 피드백을 공유하여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제 수업 외에 학생 관리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보람 있는 과정이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위 요즘에 뜨고 있는 빅데이터를 주제로 하는 중점과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관심은 상당히 뜨거운 편입니다. 작년에는 중점과정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중점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증으로 교내 입학설명회

를 방문해주신 학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점교육과정 강좌에 대한 한생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 과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중점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탐구활동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빅데이터 분석 수업에서 습득한 데이터 분석 지식을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대회에서 응용하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담당 교사와 활발하게 소통을 해 나가고 있으며, 본교는 이러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사는 항상 연구해야 한다.' 학생일 때 담당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공과목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해보니 시대의 교육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성장중심의 교육흐름에 따라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수업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교사의 꾸준한 연구가 필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교사가 될 예비 선생님들, 교사가 되어서도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